



##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8년 1월 발행 (제 93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

목차:

◎권두 메시지 ‘반대를 받는 표징’ 예레미야

◎시대를 깨닫는 ‘인간의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사람’ H. F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

### <권두 메시지>

#### ‘반대를 받는 표징’ 예레미야

누가복음 2:34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2:35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 <그리스도는 반대를받는 표적이되었다>

오늘은 "반대를받는 표적"으로 메시지 싶은 생각합니다. 위 텍스트에서 시므온은 아기 그리스도에 대해 그가 "반대를받는 표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므온의 불길한 예언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성취했습니다. 첫 강림 그리스도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하고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결국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을 거부 재판에서 유죄 판결 사형 판결을 받아 도시의 외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여 그를 숭배 취급을하고 그를 하나님의 원수 취급을하고 이단 취급을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고향과 분노와 반대와 거절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불길한 예언, 즉 그리스도는 "반대를받는 표징"고 될 것이라고 예언은 슬프기도 훌륭하게 성취 해 버린 것입니다.

### <첫 강림 그리스도를 말할 어려웠던>

첫 오순절에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이심을 깨닫지 않았던 것,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해했다 결국 자신들의 의사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말한다면 또 다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가 성경 예언 한 그리스도 이심을 깨닫게 어려웠던 사실입니다. 학교 시험에 비유한다면, 첫 강림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는 것은 난제 중의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갈고리 문제처럼, 이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깨닫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수수께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미가는 그리스도의 탄생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2 ○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헬에서 태어났다 것을 예언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원수가 성경에 익숙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등은 나사렛 예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만을 불러 예수를 거부 한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이 말하듯이 예수는 여행 도중에 베들레헬에서 태어나 있는데, 표면적 인 것 밖에 보지 않는 그들은 모두 훌륭하게 잘못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 문제에 굽지 것처럼 그들의 위선적 인 바리새인들은 첫 강림 그리스도를 오해 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다음의 걸림돌 바위가된다고 예언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취 된 것입니다.

**이사야 8:14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8:15 ○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とりわな* 같이 사용 된 것입니다.

### <첫 강림 예수님은 실족의 바위로왔다>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첫 강림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의 의도, 목적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의 본심 숨겨진 의도를 구분하기이었습니다. 마치 시험시의 수수께끼, 갈고리 문제 같이 그리스도는 재림하고 많은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오셨다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그리스도에 대해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쓰러져 또한 일어 나 결정되고 또한 반대를받는 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강림 그리스도를 오해 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러져 차질 더 위선적 인 행보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을 미리 예언 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첫 강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본심과 진정한 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그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많은 사람의 진정한 마음의 생각이 나왔다>

물론이 첫 강림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숨은 생각, 진정한 마음이 드러나게되었습니다. 하얗게 칠한 무덤, 즉 외부는 깨끗하고도 그 마음의 안쪽은 모든 죄와 탐욕에 지배되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훌륭하게 にわな에 걸려 넘어지는 반석 이신 그리스도에 걸림돌했습니다 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 된 독생자를 오해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잡아 유죄로 십자가에 못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악의 블록 형태 격자를 채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학문이 아니라도 하나님께 충실한 행로를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 첫 강림 그리스도를 통해 우연히 발견 할 사람은 비틀거리고 남아 있어야 사람은 남아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진정한 마음 숨겨진 속내는 첫 강림의 그리스도라는 난제를 통해 훌륭하게 분명했습니다.

### <재림 그리스도도 난제이다>

그런데 첫 강림 그리스도의 때 일어난 일이 종말의 재림의 날에 일어나기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하면, 종말의 날 재림 그리스도도 어려운 문제이며, 그리스도는 거치는 바위로 오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있는 것입니다.

### <종말 수수께끼, 걸림돌 바위로 이용된다>

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의 종말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난해합니다. 여러 번 읽어도 깔끔하게 의미를 모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해석을 읽어도 너무 팽팽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난해한 책을 성경에 포함 된 것입니까? 이에 관하여 내 의견을 말해 드릴한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종말의 계정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 시키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고, 반대로 이들은 재림의 날 수수께끼, 걸림돌 바위로 많은 기독교인을 나누고 구분하는 데 사용 수,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 걸림돌 바위, 모든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위해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용되는 것입니다. 난관의 대학 입학 시험에서 수수께끼를내는 것은 수험생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 수수께끼를 통해 어떤 사람은 정답 합격 한 사람은 오답하고 합격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문제는 더 이유를 위해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난제를 통해 기독교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어린 그리스도와 시므온

또한 이러한 종말의 기술을 통해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분명합니다.

다음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종말의 교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이 계시된다>

전 날, 첫 오순절 그리스도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마주하거나 그를 수용하거나 거절하거나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은 구분되어 더 나누어 져 버렸습니다. 재림의 날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재림 교리를 잡아 것인가라는 것을 통해 사람의 본심과 숨겨진 마음이 나타나는 것 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난 전 휴거 이론과 2 단계 휴거 설은 성서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단 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교리가 기독교의 숨겨진 속내 "비록 그리스도에 대한하지만 자신 만은 환난 시대에 등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진심으로 안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심이 드러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 교리에 대해 성경은 미리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4: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러한 가르침 환난 전에 곱힌다는 귀에 좋은,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난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상한 재림 교리를 잡아 사실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의 본심 숨겨진 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더 나누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첫 강림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쓰러져 또한 일어 나 결정되고 또한 반대를받는 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예언 된대로,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이 쓰러져 반대를받는 표적으로 오셨습니다.

이 것은 재림의 날에 재현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재림의 교리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위해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옛 날처럼 종말의 날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밝혔자하려고 지향하고 계시고 위선자로 분류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교리는 함정으로 사용된다>

전 날, 주님의 첫 오순절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로 사용되었다. 즉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라는 교리와 말씀이 함정이 많은 위선자들은 나사렛 예수에 앉았습니다.

같은 것은 종말의 날에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교회에 전해지고있다 재림 교리 종말 교리는 그날 많은 위선 기독교인을 잡는 울무와 같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환난 전에 꿈힌다 것이다, 그리고 거짓 교리를 맹신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환난 시대에 들어서도 이와 통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EU 가 짐승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맹신하는 사람들은 실제 짐승의 나라 인 미국이 그 지배를 시작해도 깨닫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다른 이상한 교리, 즉 제 3 성전이 건립 느니 중동 7 년 평화 조약 이니, 곡은 러시아 니의 교리를 잡아 사람들도 덫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반복한다. 그리스도의 첫 오순절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더 나누어 사용되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멋진 의해 나뉘어 그 숨겨진 마음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시므온은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쓰러져 또한 일어 나 결정되고 또한 반대를받는 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성취 많은 위선적 인 유대인은 결국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사형 선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잃었습니다. 또한 시므온 "그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라고 예언 한 것처럼, 위선적 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숨겨진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반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함으로써 실제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고 마음의 본심을 나타냈다.

나는 같은 날이 종말의 날, 재림의 날에 재현한다고 말하고있는 것입니다.

첫 오순절의 수는 재림 그리스도의 날의 형태이며, 재림도 분명 지금의 시대의 기독교인에게 더 나누어오로 조절된다고 제대로 제대로 이해해야합니다. 종말의 날, 재림의 날 전에 이미 많은 기독교인의 마음의 생각을 밝혔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가 맞으면 이미 기독교인에게 여러 이유는 행해지고되고 있으며, 많은 위선적 인 사람들은 이미 나누고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서라. 이상



그리스도의 재림은 수수께끼

## 시대를 깨닫게 "인간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가르치는 사람" H.F

---

예수님은 때를 깨달아 라라고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현대는 세속적 인본주의가 매우 중요시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생각에 따라 약간 약자를 보호하고 평화를 추구 다툼을 없애기 작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호 페미니즘 운동, 차별을 받고있는 사람을 보호 운동 등 많은 일이 일어나고로 사이트 범죄 규제법과 LGBT 을 지키는 법률이 많은 나라에서 만들어지고있는 시대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인기있는 어린이 TV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는 공식 Twitter 페이지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LGBT) '의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세서미 스트리트는 모든 모양, 크기, 색상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Christian News. NET 017 / 6.30) 세서미 스트리트는 미국에서 1969 년부터 방영되는 어린이 기초 교육 프로그램이며, 현재는 150 국가에 방영 된 높은 평가를 받고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이 프로그램은 공개적으로 LGBT 의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세속적 인본주의의 한 사람으로서 비틀즈의 존 레논이 있습니다. 사후 37 년이 지난 지금도 인기가 높고, 그의 노래 '이매진'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 애창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국가와 종교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증오를 의미하며, 이 곡의 유토피아 세계를 그리며 공유하면 세계는 변화하고, 호소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쟁을 없애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세속적 인본주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 까지나 인간 중심이며,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도덕관, 윤리관, 지혜로 모든 것을 잘 가려고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행동하면 세속적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범죄되어 버립니다.

이 관점에서 이루어진 동성 보호 법에 따라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불법으로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모든 종교는 서로 관용이어야라고 생각, 에큐메니칼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비관으로되어 버립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하고 있는지, 최근의 뉴스를 몇 가지 살펴 보자.

미국 뉴 멕시코 주 앨버 커키 · 메노나이트 교회 (Albuquerque Mennonite Church)는 월요일 게이 에리카 리 (Erica Lea)을 새로운 목사에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의 이민 정책, 인종, 사회 경제적 차별의 영향을받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진 강한 호소와 LGBTQ 커뮤니티를위한 등대 및 안전한 피난처의 제공을 호소하고있다 "고 한다.

(Christian News. NET 2017 / 9.20) 스웨덴 교회는 성직자에 모든 형태의 예배를 관리하는 새로운 관리 책을 채택하고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남성 참조 대명사를 멈추게하도록 촉구했다.

핸드북은 사제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권장되는 방법을 크게 바꾼다.

수잔 교회의 대변인은 영국의 텔레그래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그 "대신에" 하나님 "고 말한 것으로 바꾸고있다.

"다른 사람보다 성별에 치중 된기도의 옵션이 몇 가지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스웨덴 TT 통신에 따르면 핸드북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포괄적"하는 말이라는. - Eumenia 교회의 부의장 인 Sofia Camnerin 는 "포괄적 인 단어"의 사용을 옹호하고 "사회의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의 인식에 근거하고있다"고 지적했다.

(The Western Journal 2017 / 11.25) 런던 잉글랜드 교회는 예수와 무하마드를위한 공동 생일 축하를 개최했다. 킹스턴 어폰 템스 (Kingston upon Thames)의 모든 성도 교회 (All Saints Church)에서 일요일에 "Milad, Advent and Christmas Celebration '가 열렸습니다.

공지 전단지 는 예언자 무하마드의 생일을 기록한 예수의 생일을 기대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The Christian Institute 2017 / 12.7) 미국에서 동성애 성직자 임명, 스웨덴의 교회에서의 페미니즘 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호칭 변경, 영국 교회의 에큐메니칼적인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합동 모임 등 최근 뉴스를 조금 들었다만으로도 교회는 인도주의적인 생각, 세속적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의 생각이 들어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우선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에 "위선자들.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도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있다. 그들은이 나를 경배도 쓸데없는 것이다. 인간의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가르칠 뿐이니까. "(마태복음 15; 7-8)라고했습니다.

인간의 가르침을 우선했던 것은 당시의 바리새인 뿐입니 까. 지금 시대에도 당시의 바리새인의 지도자들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지도자들이 인간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치기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 23 에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 서서 베드로에게 말씀 하셨다. "내려 사탄 네가 나를 방해하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있다."**

인간적인 생각을했다 필두 제자 베드로에게조차 "내려 사탄"고 예수님은 엄격하게 질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시대가 아닐까요. 인간적인 생각하고 세속적 인본주의에 영향되고있는 지금의 교회는 주 예수는 어떻게 보이고있는 것이다. 시간을 깨닫지 않으면 안됩니다.



**세서미 스트리트도 동성애를 지지한다**